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팔란티어, 미국 골든 돔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가 시사하는 막강한 기회

팔란티어(PLTR.US): 미국 골든 돔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가 시사하는 막강한 기회

- 금주 WSJ, 배런스 등 주요 언론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Golden Dome'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팔란티어, Anduril 등의 참여를 공개
- 골든 돔 프로젝트는 우주 기반 다층 방어체계 구축안으로 2025년 초기 자금 244억 달러를 배정 받았고, 2035년까지 총 예상 비용 약 1,850억 달러 규모의 방어체계 구축안
- 2028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는 센서와 위협 추적 시스템을 연결하고 통합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핵심 사항
- 주목할 점은 AI 및 자동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방위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달리 팔란티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은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이례적인 구조라는 점
- 올해 여름까지 테스트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테스트 성공 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전망
- 우주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비장의 소스'이며 골든돔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장군실에서 직접 관리할 정도로 소프트웨어의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는 점 시사
- 1단계 프로그램 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사업 기회가 예상되며 골든돔 프로젝트가 미국 우주산업과 국방 시스템 전반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면 팔란티어 정부형 사업의 장기 성장 스토리가 기존 예상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

미국 우주 산업

우주 업황 포커스: NASA 달 표면 인프라 구축으로 전략 전환, 수혜주 찾기

- NASA는 달 궤도 우주정거장 개발을 중단하고, 달 표면 기지 건설에 집중하는 아르테미스 수정안을 발표. 향후 6년간 달 표면 인프라 구축에 총 2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 1단계(2026~2028년)는 CLPS(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 임무 빈도를 늘려 달 남극 도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2단계(2029~2031)는 대형 화물 착륙선을 투입하여 통신, 내비게이션, 전력 등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예정. 이를 위해 기존 대비 개발을 간소화한 LTV(달 지형 차량)와 표면 이동용 소형 드론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
-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달 표면 착륙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CLPS 관련 수혜주는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 파이어플라이(FLY) 등이며 2단계부터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역할이 확대될 전망. 간소화된 LTV 입찰에서는 기존 타당성 연구 단계에 선정된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 루나 아웃포스트(비상장), Astrolab(비상장)이 수주 경쟁을 하고 있음. 표면 인프라(통신, 전력, 건설) 구축 관련해서는 로켓랩(RKLB), 레드와이어(RDW) 등이 수혜가 기대

글로벌 에너지

첨단 무기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

- 희토류 영구자석은 모터와 레이더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첨단 무기의 핵심 구성요소
- 홍콩 SCMP는 최근 전쟁 이후 미국의 희토류 재고가 2개월치에 불과하다고 보도하며 미국 희토류 밸류체인에 대한 우려가 증가
- 희토류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말라카 해협으로 주로 운송되어 현재 상황에서 물리적 공급망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나 여전히 미국의 중국 여전히 의존도가 높아(71%) 전쟁 종료 이후의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AI/플랫폼

알파벳(GOGL.US):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배심원 유죄 판결

- LA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3월 25일 메타와 구글(유튜브)이 미성년 사용자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판단.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 등 총 6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 책임 비율은 메타 70%, 유튜브 30%로 산정

메타(META.US): AI 에이전트 시대를 위한 투자 확대 속 수백 명 규모 추가 감원

- 메타가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Dreamer의 창업팀을 영입하며, 공동창업자이자 2021년 퇴사한 전 VR 사업부 수장 Hugo Barra가 약 5년 만에 복귀

팔란티어(PLTR.US): Maven Smart System, 펜타곤 공식 프로그램으로 격상

- 미 국방부 부장관 Steve Feinberg가 3월 9일자 정책 메모를 통해 팔란티어의 Maven Smart System을 공식 '프로그램 오브 레코드(program of record)'로 지정. 이는 단순한 계약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파일럿이나 단기 계약 단계를 넘어 항구적 예산 편성 절차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향후 행정부 교체나 경쟁 입찰자가 이를 대체하기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조치

오픈AI(비상장): 인력 두배 확충 및 추가 투자금 유치

- 2026년 말까지 현재 약 4,500명인 인력을 약 8,000명으로 거의 두 배 늘릴 계획. 신규 채용은 제품 개발, 엔지니어링, 리서치, 세일즈 부문에 집중되며, 기업 고객의 AI 도구 활용을 지원하는 '테크니컬 앰배서더십' 전문 인력도 확충

앤스로픽(비상장): 앤스로픽, 국방부 주장의 모순 정면 반박

- 앤스로픽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두 건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며, 자사가 '국가안보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펜타곤의 주장이 기술적 오해와 협상 과정에서 한 번도 제기되지 않은 논점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

우주/로봇

알파벳(GOGL.US): 구글 딥마인드, 독일 Agile Robots와 제휴

- 구글 딥마인드가 뮌헨 기반 로봇 기업 Agile Robots와 전략적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 자사 제미니AI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Agile Robots의 하드웨어에 통합하기로 발표

아마존(AMZN.US):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Fauna Robotics 인수 및 Zoox 로보택시 확장

- 아마존이 뉴욕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Fauna Robotics를 인수하며 소비자 로보틱스 시장에 본격 진입. Fauna의 첫 제품 Sprout은 높이 42인치, 무게 50파운드의 이족보행 로봇으로 5만 달러에 책정되어 있으며, 메타·구글 출신 엔지니어가 2024년 설립한 회사로 디즈니·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초기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 약 50명의 인력이 아마존에 합류하며 'Fauna Robotics, an Amazon company'로 운영을 지속할 예정

스페이스X(비상장): 테슬라·스페이스X·AI 합작 반도체 공장 'Terafab' 오스틴 건설 공식 발표

- 일론 머스크가 3월 21일 오스틴 Seaholm 발전소 행사에서 테슬라·스페이스X·AI 합작의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 'Terafab'을 공식 발표. 총 투자 규모 200~250억 달러로 추산되며, 칩 설계부터 리소그래피, 제조,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 공정을 단일 시설에 수직 통합하는 구조

팔란티어

상장 국가

미국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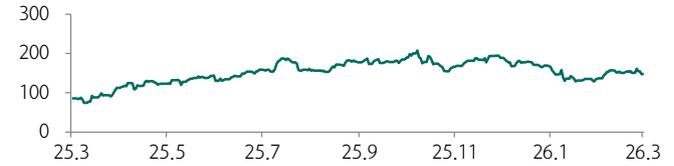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359

최근 주가 추이

(USD)



미국 골든 돔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가 시사하는 막강한 기회

- 금주 WSJ, 배런스 등 주요 언론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Golden Dome'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팔란티어, Anduril 등의 참여를 공개
- 골든 돔 프로젝트는 우주 기반 다층 방어체계 구축안으로 2025년 초기 자금 244억 달러를 배정 받았고, 2035년까지 총 예상 비용 약 1,850억 달러 규모의 방어체계 구축안
- 2028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는 센서와 위협 추적 시스템을 연결하고 통합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핵심 사항
- 주목할 점은 AI 및 자동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방위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달리 팔란티어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은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이례적인 구조라는 점
- 올해 여름까지 테스트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테스트 성공 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전망
- 우주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비장의 소스'이며 골든돔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장군실에서 직접 관리할 정도로 소프트웨어의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는 점 시사
- 1단계 프로그램 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사업 기회가 예상되며 골든돔 프로젝트가 미국 우주산업과 국방 시스템 전반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면 팔란티어 정부향 사업의 장기 성장 스토리가 기존 예상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

미국 우주 산업

NASA는 달 표면으로, 기업들은 실적 궤도로 (우주 Pure-play 실적 점검)

우주 업황 포커스: NASA 달 표면 인프라 구축으로 전략 전환, 수혜주 찾기

- NASA는 달 궤도 우주정거장 개발을 중단하고, 달 표면 기지 건설에 집중하는 아르테미스 수정안을 발표. 향후 6년간 달 표면 인프라 구축에 총 2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 1단계(2026~2028년)는 CLPS(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 임무 빈도를 늘려 달 남극 도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2단계(2029~2031)는 대형 화물 착륙선을 투입하여 통신, 내비게이션, 전력 등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예정. 이를 위해 기존 대비 개발을 간소화한 LTV(달 지형 차량)와 표면 이동용 소형 드론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
-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달 표면 착륙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CLPS 관련 수혜주는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 파이어플라이(FLY) 등이며 2단계부터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역할이 확대될 전망. 간소화된 LTV 입찰에서는 기존 타당성 연구 단계에 선정된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 루나 아웃포스트(비상장), Astrolab(비상장)이 수주 경쟁을 하고 있음. 표면 인프라(통신, 전력, 건설) 구축 관련해서는 로켓랩(RKLB), 레드와이어(RDW) 등이 수혜가 기대

우주 Pureplay 대표 4종목 실적: 일부 일정 지연에도 기대치 상회하는 성과에 주목

- 로켓랩(RKLB)은 2025년 21건의 기록적인 발사 달성, 2026년 이미 30건의 발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SDA(우주개발청) 대형 수주를 바탕으로 우주 시스템 사업부 2026년 매출 성장 가이드언스를 38%로 전망. 중형 로켓 Neutron 발사 시기 연기(26년 4분기)는 아쉬울 수 있으나 구조적 문제는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중형 로켓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
- AST 스페이스모바일(AST)은 상업 서비스 외에 정부 계약이 2026년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2027년에는 상업 서비스 완전 가동과 정부 매출 확대에 매출액이 10억 달러(컨센 7.6억)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 2026년 제조 속도를 가속화하고 발사에 성공한다면 D2C 상용서비스 가동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도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플래닛랩스(PL)은 지정학적인 환경과 주권적 우주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의 대표 수혜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 Defense & Intelligence 사업부의 강력한 성장을 바탕으로 FY26년에 조정 EBITDA와 FCF 지표가 연간기준 처음으로 흑자 달성
- 인튜이티브 머신즈(LUNR)은 Lanteris 인수 효과가 기대치를 상회하여 2026년 매출 가이드언스를 9~10억 달러로 제시, 컨센(7.2억)을 크게 상회. Lanteris 인수로 실적 안정성이 높아졌으며 저궤도/중궤도/정지궤도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수주 기회가 기대되는 상황. NASA가 CLPS 미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LUNR의 본업 관련 수주 기대감이 2026년 크다는 점에 주목
- 주요기업들의 최근 실적발표는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적인 수주 획득과 강력한 매출 성장으로 확인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줌.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감이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나 미국 우주 산업과 주요 Pureplay 종목에 대한 투자 기대감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에너지

이란전쟁과 희토류

첨단 무기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

- 희토류 영구자석은 모터와 레이더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첨단 무기의 핵심 구성요소
- 홍콩 SCMP는 최근 전쟁 이후 미국의 희토류 재고가 2개월치에 불과하다고 보도하며 미국 희토류 밸류체인에 대한 우려가 증가
- 희토류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말라카 해협으로 주로 운송되어 현재 상황에서 물리적 공급망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나 여전히 미국의 중국 여전히 의존도가 높아(71%) 전쟁 종료 이후의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미국 對중국 중희토류 의존도는 100%

-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71%가 중국산이며 중희토류는 100%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확인
- 미국이 호주 등 우호국들과 희토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FORGE(지전략적 자원협정 포럼)등을 도입하며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펼치는 것 역시 단기간 자국 내 밸류체인의 자급이 불가능하기 때문

중국의 희토류 보조금 증가율은 연평균 20% 이상

- 중국의 규제 방향은 과거와 달리 수출 통제를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정제와 분리 등 병목 공정에 대한 지배를 강화
- 희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
- 2020년부터 수출통제법을 제정해 가공과 제련 기술의 해외이전을 방지했으며 2023년에는 수출 통제 대상에 추출과 분리 기술을 포함
- 주요 기업의 희토류 조달 기간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

희토류 가격 단기 강세 지속 전망

- 희토류 NdPr 산화물 가격은 최근 7개월간 거의 2배 상승하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 4분기 중국 북방희토그룹 등은 희토류 정광 가격을 전분기 대비 37% 인상
- 3월 25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수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 중국은 2024년 8월 이후로 1년에 2차례 발표하던 희토류 쿼터 발표를 중단했으며 국영기업에게만 비공개로 통보

AI/플랫폼

알파벳(GOGL.US):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배심원 유죄 판결

- LA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3월 25일 메타와 구글(유튜브)이 미성년 사용자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판단.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 등 총 6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 책임 비율은 메타 70%, 유튜브 30%로 산정
- 양사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판결이 후속 소송의 합의 압력을 높이고 플랫폼 설계 변경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빅테크 섹터 전반의 규제-소송 비용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변곡점으로 평가

메타(META.US): AI 에이전트 시대를 위한 투자 확대 속 수백 명 규모 추가 감원

- 메타가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Dreamer의 창업팀을 영입하며, 공동창업자이자 2021년 퇴사한 전 VR 사업부 수장 Hugo Barra가 약 5년 만에 복귀
- Dreamer 팀은 Chief AI Officer Alexandr Wang이 이끄는 Superintelligence Labs 산하에 합류하여 AI 에이전트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 거래 구조상 Dreamer는 독립 법인으로 유지되고 Meta는 해당 기술의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형태
- 올해 1월 Reality Labs 인력의 약 10%(약 1,000명)를 정리한 데 이은 2026년 두 번째 구조조정 진행 예정. 영업, 채용, Reality Labs 등 복수 부문에 걸쳐 수백 명 규모(1,000명 미만)의 감원을 단행 예상

팔란티어(PLTR.US): Maven Smart System, 펜타곤 공식 프로그램으로 격상

- 미 국방부 부장관 Steve Feinberg가 3월 9일자 정책 메모를 통해 팔란티어의 Maven Smart System을 공식 '프로그램 오브 레코드(program of record)'로 지정. 이는 단순한 계약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파일럿이나 단기 계약 단계를 넘어 항구적 예산 편성 절차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향후 행정부 교체나 경쟁 입찰자가 이를 대체하기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조치
- 2017년 드론 영상 분석 도구로 출발한 Project Maven은 이후 다중 센서 데이터를 융합해 표적을 식별하고 작전 결심을 지원하는 포괄적 군사 AI 플랫폼으로 진화했으며, 이번 조치로 전 군 차원의 공식 역량으로 확대 적용

오픈AI(비상장): 인력 두배 확충 및 추가 투자금 유치

- 2026년 말까지 현재 약 4,500명인 인력을 약 8,000명으로 거의 두 배 늘릴 계획. 신규 채용은 제품 개발, 엔지니어링, 리서치, 세일즈 부문에 집중되며, 기업 고객의 AI 도구 활용을 지원하는 '테크니컬 앰배서더십' 전문 인력도 확충
-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약 1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에 근접했으며, 이로써 최근 펀딩 라운드 총 규모가 1,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안드리센 호로위츠, 아부다비 국부펀드 MGX 등이 공동 리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달에 참여. 기업가치는 자금 포함 기준 약 8,500억 달러로 상승. 이번 추가 조달은 지난달 아마존(500억 달러), 엔비디아(300억 달러), 소프트뱅크(300억 달러) 등이 참여한 1,100억 달러 라운드에 이어진 것

앤스로픽(비상장): 앤스로픽, 국방부 주장의 모순 정면 반박

- 앤스로픽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두 건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며, 자사가 '국가안보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펜타곤의 주장이 기술적 오해와 협상 과정에서 한 번도 제기되지 않은 논점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
- 첫째, 앤스로픽 정책 총괄 Sarah Heck은 자사가 군사작전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요구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라 규정하며, 협상 과정에서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 둘째, 공공부문 총괄 Thiyagu Ramasamy는 클라우드 모델이 에어갭(air-gapped) 환경의 정부 보안 시스템에 배치되면 앤스로픽이 원격 비활성화나 백도어 접근, 무단 업데이트를 수행할 기술적 수단 자체가 없다고 설명하며, 펜타곤이 주장하는 '작전 중 기술 차단 위험'이 허구라고 반박. 셋째이자 가장 주목할 부분은 타임라인의 모순인데, 펜타곤이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공식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인 3월 4일, 국방부 차관 Emil Michael이 CEO Amodi에게 양측이 자율무기 및 미국 시민 대량감시 이슈에서 합의에 '매우 가까운(very close)' 상태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 그러나 불과 며칠 뒤 Michael은 공개적으로 앤스로픽과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고, 이후 인터뷰에서 재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음. 앤스로픽은 이러한 시간대 모순이 공급망 리스크 지정이 실질적 안보 판단이 아닌 협상 지렛대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

우주/로봇

알파벳(GOGL.US): 구글 답마인드, 독일 Agile Robots와 제휴

- 구글 답마인드가 뮌헨 기반 로봇 기업 Agile Robots와 전략적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 자사 세미나이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Agile Robots의 하드웨어에 통합하기로 발표
- Agile Robots는 전 세계에 20,000대 이상의 로봇 시스템을 배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구글 입장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의 운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는 셈
- 초기에는 전자자동차 제조, 데이터센터, 물류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집중하며, 로봇 배치→데이터 수집→모델 훈련→성능 개선의 '시 플라이휠'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

아마존(AMZN.US):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Fauna Robotics 인수 및 Zoox 로보택시 확장

- 아마존이 뉴욕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Fauna Robotics를 인수하며 소비자 로보틱스 시장에 본격 진입. Fauna의 첫 제품 Sprout은 높이 42인치, 무게 50파운드의 이족보행 로봇으로 5만 달러에 책정되어 있으며, 메타·구글 출신 엔지니어가 2024년 설립한 회사로 디즈니·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초기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 약 50명의 인력이 아마존에 합류하며 'Fauna Robotics, an Amazon company'로 운영을 지속할 예정
- 이는 지난주 스위스 기반 계단 등반형 배송 로봇 기업 Rivr 인수에 이은 한 달 내 두 번째 로보틱스 M&A로, 2012년 Kiva Systems(7.75억 달러) 인수 이후 물류 자동화에 100만 대 이상의 로봇을 투입해 온 아마존이 웨어하우스를 넘어 라스트마일 배송과 가정용 로봇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흐름
- 아마존 산하 Zoox는 올해 오스틴과 마이애미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을 발표. 기존 라스베이거스·샌프란시스코의 서비스 구역도 대폭 확대하여 총 100대의 로보택시를 공공 도로에 투입 예정. 누적 주행 약 200만 마일, 탑승객 35만 명을 기록했으며, 올여름 우버와의 제휴를 통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 앱 호출도 가능해질 전망. 다만 유료 서비스 전환을 위한 NHTSA의 최대 2,500대 상업 운행 승인이 아직 미결 상태로, 주 400,000회 유료 운행을 제공 중인 알파벳 웨이모 대비 상업화 속도에서는 격차가 존재

스페이스X(비상장): 테슬라·스페이스X·xAI 합작 반도체 공장 'Terafab' 오스틴 건설 공식 발표

- 일론 머스크가 3월 21일 오스틴 Seaholm 발전소 행사에서 테슬라·스페이스X·xAI 합작의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 'Terafab'을 공식 발표. 총 투자 규모 200~250억 달러로 추산되며, 칩 설계부터 리소그래피, 제조,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 공정을 단일 시설에 수직 통합하는 구조
- 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목표로 하며, 오스틴 기가텍사스 북쪽 캠퍼스에 우선 파일럿 팹을 구축한 뒤 폴스케일 시설로 확대하는 로드맵. 생산 칩은 두 종류로, 하나는 테슬라 차량·사이버캡 로보택시·옵티머스 휴머노이드용 엣지/추론 칩(AI5)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 환경에 특화된 고효율·방사선 내성 칩(D3)으로 스페이스X의 궤도 AI 위성용
- 머스크는 Terafab 생산 컴퓨팅 용량의 80%를 우주 기반 궤도 AI 위성에 배분하고 지상용은 20%에 그칠 것이라 밝혀,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 목적이 스페이스X의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음을 시사
- 위성에 탑재되는 D3 칩은 우주 환경의 방사선과 극한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고효율·방사선 내성 프로세서로, 내부적으로 'AI Mini Sat'으로 불리는 프로토타입 위성은 길이 약 170미터에 100KW의 전력을 갖추는 구조. 머스크는 우주의 태양 복사량이 지표면 대비 약 5배에 달하고, 진공 상태에서의 열 방출이 용이하여 2~3년 내 궤도에서 AI 워크로드를 구동하는 비용이 지상보다 저렴해질 것이라 주장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민, 김시연)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중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민, 김시연)는 2026년 3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